정진원의 석보상절 이야기 ❽ 싯달타 태자 이상형 찾기



▶ 한줄요약

어느덧 혼기가 찬 싯달타 태자의 배필을 찾기 위해 분주하다. 당시 이상형은 '옥녀'였는데, 이에 부합하는 인물이 집장석의 딸인 '구이' 였다. 태자는 구이를 배필로 맞이하기 위해 재주를 겨루는 시합에 나선다.

싯달타 태자 배필은 어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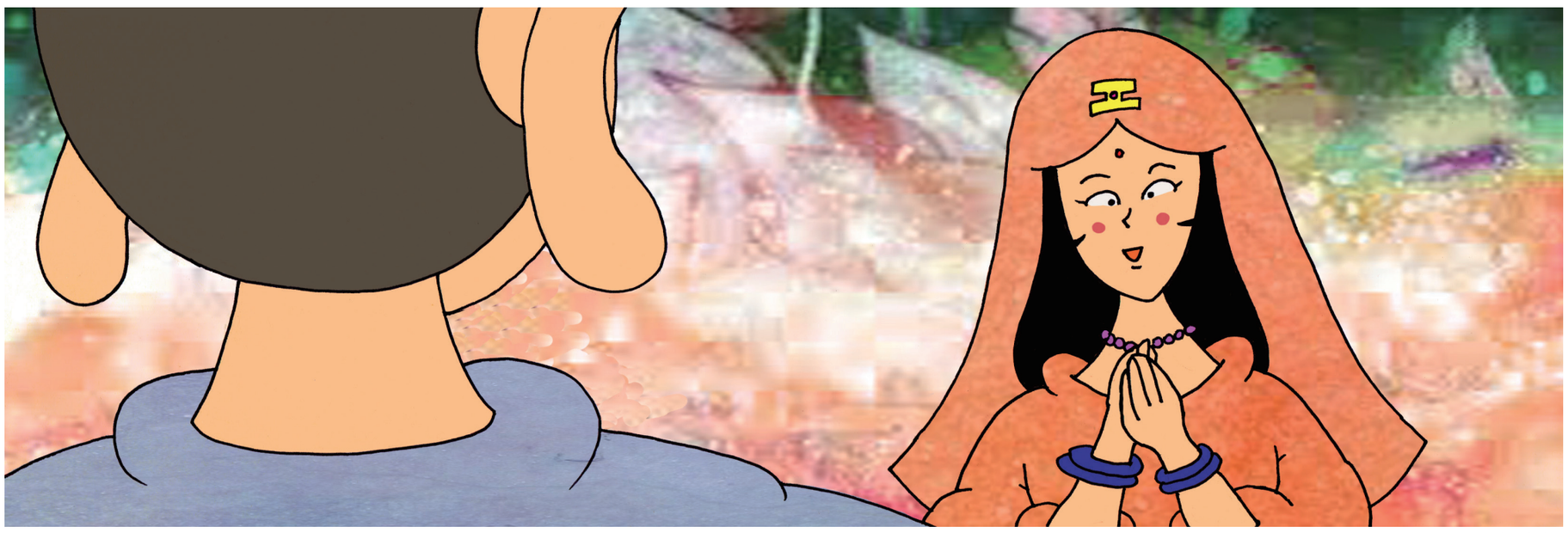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태자의 배우자 구하기

싯달타 태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될 이상형을 찾는다. 처음에야 아버지 정반왕과 대신들의 뜻에 따라 시작되었으나 배필을 구하는 실제 작업에 들어가자 자기의 이상형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이러이러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어필한다. 당시의 이상형은 '옥녀(玉女)' 의 모습으로 대표되었던 것 같다. 지난 이야기에서도 '옥녀'가 칠보 안에 들어 있어 살펴본 바 있지만 배우자로서의 이상형은 어떠할지 당시 사람들의 미인관에 주목해보자. 〈석보상절〉 권3의 내용을 중심으로 〈월인천강지곡〉과 한역 경전들을 참조하여 다양한 프리즘으로 채색되는 씨실과 날실의 직조를 감상해 보기로 한다.

역사(力士)들과 석종장자들이 왕께 사뢰었다.

"태자께서 부처가 되시면 전륜성왕(聖王)의 자손이 그칠 것입니다."

정반왕이 이르셨다.

"어떤 이의 딸이어야 태자의 배필(妃子)이 될 수 있으려뇨."

석종 장자(釋種長者)는 석가족의 어른이다. 이렇게 태자가 가르치는 스승보다 뛰어나고 매사에 비범할수록 정반왕과 신하들은 그가 출가할까 노심초사하며 혼처를 구하게 된다. 그 내용을 담은 월인천강지곡도 거의 같은 내용이다.

삼십육장

석종(釋種)이 말씀드리기를, 태자가 출가하시면 자손이 끊어질 것입니다

아버님 정반왕이 이르시기를, 누구의 딸을 골라서 며느리 되게 하리오

태자의 이상형

태자가 금으로 여자의 모습을 만드시고 여자의 덕을 써서 이와 같아야 부인을 삼으리라 하시니 왕이 좌우에 있는 범지(梵志)를 시켜 두루 다니며 얻으라 하셨다.

좌우 범지는 왕의 양쪽에서 왕을 따라 움직이며 보필하는 사람이다. 부처의 협시보살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범지(梵志)는 바라문(brahmana)의 한역으로 범사(梵士)라고도 한다.

무엇보다 태자의 이상형이 궁금하지 않은가. 〈불설보요경〉 권3과 권9에는 태자의 이상형과 구체적인 모습이 서술되고 있다. 그 내용을 종합하면 외모는 자마금(紫磨金)같이 빛나고 마음이 깨끗하여 허공과 같고 조용하되 꼭 알맞은 말만 하며 인자하고 남편을 공경하고 술이나 맛을 탐하지 않아야 한다. 한마디로 탐진치(貪瞋痴)를 벗어나고 신구의(身口意) 삼업이 어긋나지 않는 품성을 갖추고 생김새는 옥녀(玉女)형이 이상형이라고 할 수 있다.

범지가 한 옥녀(玉女)와 같은 이를 만나고 돌아와 사뢰었다.

"집장석의 따님이 계시더이다."

왕이 말씀하셨다.

"만일 태자의 뜻에 맞지 않더라도 그 딸을 고르게 하리라."

하시고 나라의 고운 여자를 모두 태자의 강당에 모이게 하셨다.

그 이상형인 옥녀(玉女)와 같은 사람을 찾았는데 집장석의 딸이 그러하다는 것이다. 집장석(執杖釋)은 팔리어로는 'Dandapani Sakka' 로 의역하면 석가족 사람으로 이름이 집장자(執杖者)이다. 지팡이(Danda)를 짚고 다녀서 붙은 이름이다. 〈불본행집경〉 권13에는 큰 부자로 돈과 비단이 풍족하고 모든 것을 구비하였다고 한다. 딸이 하나 있는데 이름은 '구다미(瞿多彌)' 라고 하였고, 〈석보상절〉 권3에서는 '구이(俱夷)' 로 나온다.

정반왕은 아들 싯달타의 의견보다 범지가 찾은 배필감을 중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범지의 의견은 곧 정반왕의 의중에 맞는 사람일 터이고 가문과 왕위를 계승할 자손이 중요하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왕실로서는 태자의 아내이기에 앞서 왕실의 며느리를 구하는 일이었음을 월인천강지곡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講)은 글을 읽어 뜻을 찾는 것이니 강당(講堂)은 글을 강하는 집이다. 협주의 풀이이다. 학당(學堂)이 글 배우는 집이고 강당은 글을 읽고 뜻을 찾는 공부를 하는 집인 것이다.

태자, 이상형 구이를 만나다

그때 집장석의 딸 구이도 강당에 와서 태자를 뚫어지게 보거늘 태자가 웃으시고 보배 수정을 건네주셨다.

구이가 사뢰었다. "나는 보배를 아끼지 아니하고 공덕으로 장엄합니다."

어느덧 혼기 찬 싯달타 태자
심신 완벽한 '옥녀'가 이상형
집장석의 딸인 '구이' 부합돼
태자, 배필 얻기 시합에 나서

'구이(俱夷)' 는 'Gopikā' 를 음역한 구이(俱夷 · 裘夷) · 구비가(瞿比迦) · 교비(嶠比) · 구파(瞿波 · 瞿婆) 등으로 기록된다. 번역하여 수호지(守護地) · 부장(覆障) · 명녀(明女)라고 한다. 일설에는 야수다라의 별명이라고 하는데 〈석보상절〉 권6에서는 '야수다라' 로 등장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구이가 태자를 바라보는 태도이다. 서로 첫눈에 반해 배필이 되는 드라마틱한 장면인데 구이의 거칠 것 없는 당당한 태도며 태자에게 대하는 첫 마디로 단박에 태자를 매료시킨다.

일단 싯달타가 태자라고 해서 눈을 피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쌀아 보다' 인데 주목(注目)한다는 뜻이다. 〈석가보〉에는 싯달타 보살을 자세히 보시며 눈조차 깜빡이지 않았다(諦視菩薩目未曾眴)고 쓰여 있다. 서로 빨려들 듯이 바라보는 모습이 그려지는 장면이다.

그러자 태자도 마음에 들어 웃으며 자신의 보배인 수정을 꺼내 주며 호감을 표시했다는 것이다(執持寶英以遺俱夷). 여러 경전에는 정반왕이 미리 준비한 많은 보배를 거기에 모인 처녀들에게 나눠주었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수정 보배는 그중에서도 특별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구이는 수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보배를 소중히 여기거나 아끼지 않고 그보다는 공덕으로 장엄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사치품으로 나를 꾸미기보다 나의 인품과 행동거지에서 우러나오는 공과 덕으로 나의 가치를 드러낸다는 표현이다. '아끼지 않는다' 는 〈석가보〉에서 '탐(貪)하다' 로 쓰고 있다.

현재에도 자신을 과시하기 위하여 명품을 사려고 밤새 줄서는 기사가 나오는 세태가 만연한데 그러한 우리에게 한 방 멋지게 날리는 말이 아닌가. 이러한 멋짐과 당당함에 매료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태자는 구이야말로 자신의 배필임을 믿어 의심치 않고 구이에게 장가들기 위한 한 판 겨루기에 돌입한다. 이상의 내용을 〈월인천강지곡〉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삼십칠장

태자가 배필(妃子)의 모습을 금으로 된 상(金像)으로 만들어 부덕(婦德)을 쓰십니다

집장석의 딸이 금상의 모습과 같으셔서 수정을 받으십니다

구이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왕이 범지를 이각시 집에 보내셨다.

집장석이 말하였다. "우리 가문에서는 재주를 겨루고 나서야 사위를 맞습니다."

왕이 태자에게 물으셨다. "재주를 겨루겠느냐."

태자가 대답하였다. "겨루겠습니다."

왕이 북을 쳐서 재주 겨룰 사람을 다 모으라고 하시고 명령하셨다. "재주 겨루기에서 이긴 사람이라야 집장석의 사위가 될 것이다."

이야기가 갈수록 흥미진진해진다. 싯달타 태자는 구이와 결혼하기 위하여 기꺼이 한판 승부를 하겠다고 한다. 출가하여 붓다가 될 것을 걱정한 아버지 정반왕과 좌우 신하들은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집장석 가문도 예사롭지 않다. 상대가 그 나라의 왕이고 왕자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훌륭한 사위 선발대회 통과의례를 거쳐야 한다고 통보한다. 왕과 태자가 거기에 호응하여 전국의 쟁쟁한 청년들과 기량을 겨루는 것이다. 스토리텔링의 묘미를 아는 전개이다. 전국의 어여쁜 아가씨들이 커다란 강당에 모여 아름다움을 뽐내고 전국의 늠름한 청년들이 기량을 겨루는 장면을 떠올려 보시라. 스펙터클한 영화의 한 장면이다.

당시 정말 이렇게 왕이나 태자도 정정당당하게 겨루기를 통해 결혼을 하였을까. 태자의 승리가 예견되는 이야기지만 그 누구나 그리는 공명정대한 이야기 전개에 빠져들게 된다. 태자가 이미 전륜성왕의 재목이요, 그 누구와 겨루어도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불본행집경〉권12에는 태자가 놀이에만 빠져 학문과 기예가 없어 집장석이 내 딸을 시집보낼 수 있을까 의심했다는 상반된 내용도 나온다.

아무튼 이토록 어여쁜 선남선녀의 만남도 유쾌하고 혼사의 과정도 축제처럼 펼쳐지는 이 내용을 〈월인천강지곡〉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삼십팔장

집장석이 사위를 고르는데 태자의 재주를 못 믿어 임금의 말을 거스르니

아버님이 태자를 의심하시어 겨루기 여부를 묻고 나라의 사람들을 다 모으시니

다음 이야기는 스케일도 장대한 코끼리 던지기 대회부터, 씨름, 활쏘기 명사수 대회가 이어진다. 우리 모두 타임머신을 타고 카필라국으로 떠나고 싶어질 것이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